

북중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신상진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언

1950년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하여 북한을 붕괴직전의 상황에서 구원한 이후 북한과 중국은 대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북한의 전쟁도발은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의 개입을 초래하였고, 중국은 38도선 이북에 대한 유엔군의 공격을 자신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여 김일성 정권의 생존을 지원하였다. 중국의 한국전 참전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지도부 간에는 긴밀한 유대감이 싹트게 되었고, 1961년 7월 군사동맹조약 체결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은 명실상부한 혈맹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중국에서 전개된 문화대혁명 당시 북중관계는 다소 이완되기도 하였으나, 한국전을 계기로 구축된 양국 지도부간 유대관계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자력갱생적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북중간 긴밀한 정치·군사적 관계가 경제적인 측면에 그대로 투영되지는 못하였다. 그 주요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외국과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경시하고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채

택한 데 있었다. 특히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1958년부터 다소 일변도 정책을 포기하고 대약진운동을 실시하여 독자적인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간 경제교역액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으며, 중국이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1978년 이후 중국이 과거의 자력갱생 정책을 포기하고 대외 개방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중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북한과 중국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핵문제로 인하여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북한 경제가 1990년대 들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지원은 북한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북한과 중국간 경제관계 변화 추이는 북한의 장래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본 글은 최근 북한과 중국간 경제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양국간 경제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중 무역 현황

북한과 중국은 역사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접경국가인 바, 북중 양국은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북중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량의 변화 추이와 무역형태 그리고 무역 결제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950년대 이래 북한과 중국간 무역관계는 계속 신장세를 보여 온 것이 아니라, 양국의 경제상황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복을 보여 왔다.

1950년대에는 북중 무역액이 북한 전체 무역액의 약 50%에 달함으로써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 지위를 차지하였다. 당시 북중간 무역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무역적자가 상당한 정도의 규모에 달하였고,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원조 제공에 의한 것이었다.

1960년대에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북한경제의 급성장으로 양국간 교역량도 1959년 1억 1천만 달러에서

1966년에는 2억 달러로 증가되었다. 이 기간동안 북한의 총교역액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40% 수준을 유지하였는 바, 중국은 북한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서 발발한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중국경제가 침체국면에 처하고 북중간 정치관계가 악화됨으로써 북중간 무역액이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북한의 총교역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

“
 중국이 외국에 제공하는 공개적 원조를 ‘명보’(明補)라고 하고, 통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는 암거래 방식에 의한 원조를 ‘암보’(暗補)라고 하는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식 ‘명보’는 최근들어 감소되고 있지만 북한 김정일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암보’는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하는 비중도 15% 정도로 낮아지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서방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외채부담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중국과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간 경제관계가 심

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8년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였던 북중간 무역규모가 1980년에는 6억 9천만 달러에 달하였고, 1990년 구소련 붕괴 이후에도 북중간 무역액이 사상 최고치인 8억 9천만 달러로 증가되었다. 최근 북중간 무역규모 확대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원조 제공에 따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장기적 침체와 중국의 시장경제 체제 도입으로 1994년 이래 북중간 무역액은 약 6억 달러로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주요국가에 대한 북한의 대외 무역 비중 (%)

국 가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러시아연방	53.8	14.1	11.8	13.4
중 국	10.1	23.6	28.2	36.3
일 본	10.1	19.7	19.5	19.1

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년판.

북한과 중국간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원조 제공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경제원조를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고 북한체제가 유지되도록 협력하여 왔다. 중국이 외국에 제공하는 공개적 원조를 '명보(明補)라고 하고, 통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는 암거래 방식에 의한 원조를 '암보(暗補)라고 하는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식 '명보'는 최근들어 감소되고 있지만 북한 김정일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암보'는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중간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불균형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무상원조를 제공한데 따른 결과라는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원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와 식량이다. 1990년 구소련 붕괴 이후 북한의 최대 경제원조국이었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경화결제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원유와 석탄공급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북한은 중국의 경제지원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북한이 중국에게 하등의 이익이 되지 않고 단지 부담요인이 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원유와 식량을 제공해 주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대해 매년 1백만 톤 정도의 원유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에너지 부족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78년 이래 급속한 경제발전정책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여 1993년부터 원유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반전되었지만 북한에 대해 매년 일정량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으로 북한이 체제유지에 위기를 느끼게 된 1994년에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 1백 30만 톤 가량의 원유를 절반은 무상으로 나머지 절반은 국제가격의 반액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제공되는 중국의 원유공급은 1991년 이래 기존의 우호가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2년부터 중국은 북한에 대해 원유 거래시 경화결제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1990년 1백만 톤의 원유를 6천 1백만 달러에 도입하였으나, 1991년에는 중국으로부터 1백 10만 톤의 원유를 1억 3천 9백만 달러에 도입하였다. 1992년 이후에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원유 도입시 과거 적용받던 우대조치를 포기하고 국제시장가격에 따라야만 했다.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식량도 역시 북한체제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식량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1993년의 경우 북한은 658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나 426만 톤 밖에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약 200만 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1994년도에는 북한의 식량 생산이 더욱 감소하여 1995년도 식량 부족량이 약 2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에 대해 식량 제공을 요청하여 왔고, 중국은 자국 역시 자연재해와 경작면적 감소 등으로 인하여 식량수급 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쌀, 옥수수, 콩 등 곡물을 매년 약 5~60만톤씩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하는 식량은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식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바, 북한의 식량사정 해소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중 무역 형태

북한과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맹국인 바, 북중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무역 형태로서는 변경무역을 들 수 있다. 양국간 변경무역은 1966년 문화대혁명을 계기로 거의 중단되었으나, 1980년대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중국 길림성의 도문과 요녕성의 단둥 등을 통해 북중간 변경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북한이 중국과의 변경무역을 중시하여 신의주, 혜산, 회령 등지에 140여개에 이르는 중국상품 거래시장 개설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중국도 변경무역 확대를 통해 연안지역에 비해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변경지역 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북중간 무역에서 변경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1994년도의 경우 북한과 중국간 무역규모는 북한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1993년에 비해 약 30%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변경무역은 여전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 실례로 1994년도 단둥을 경유한 북중간 변경무역액은 약 8천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는 세금 포탈을 위해 낮게 신고된 액수이며, 밀수를 포함한 실질적 변경무역 규모는 약 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북중간 변경무역액이 양국간 전체 무역액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약 3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북한과 중국 동북3성간 무역거래가 양국간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1994년 1~5월 기간 동안 북중 무역거래 규모는 8천 44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다. 무역거래가 감소한 주요 이유는 1993년부터 중국 중앙정부가 변경무역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연변지역에 대한 특혜조치를 철폐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중국은 불물교환 방식의 무역거래에서 서류상 적자가 발생하면 관세를 면제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흑자와 적자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무역대금의 약 7%를 관세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무역 형태중의 하나로 중개무역이 있다. 북중간 중

개무역은 대부분이 홍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홍콩의 대북한 총수출액중 90% 이상이 이러한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홍콩이 북한에 대해 수출하는 상품의 8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것을 다시 북한에 재수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바, 북한과 홍콩간 무역은 실지로는 북중간 무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래 홍콩을 중개지로 한 북중간 교역규모가 매년 1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북중간에는 정규 무역 이외에 밀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북중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 밀

수는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또는 공해상에서 선적한 중국 자동차를 북한 항구에서 하적하여 북한 군부가 이를 북중 국경지역까지 운반하는 형태로 밀수행위가 공공연하고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밀수행위는 북한정부가 외국으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자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중간 무역형태와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거 적용해 오던 구상무역 방식을 변경하여 경화결제 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무역결제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1992년 1월 북한과 「무역협정」을 제

결하여 북한에 대해 경화결제에 의한 교역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중국은 북한과 구상무역 방식을 지속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북한에 대하여 교역방식의 변화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또한 북중간 무역에서 발생한 중국측의 무역흑자가 북한에 대한 중국

“

중국경제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및 식량 지원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북한은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하여 미·일 등 서방국가에 대해 개방정책을 채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의 차관 형식으로 처리되어 왔으나, 중국의 대북한 무역흑자가 1992년말 현재 약 15억 달러로 누적되어 중국정부가 큰 부담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은 계속

해서 북한측에 대해 양국간 자율적인 경제교류를 위해 경화결제를 요청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구상무역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중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책의 일환으로 경화결제 방식 채택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국측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경화결제 방식을 채택할 경우 북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고,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전면 경화결제 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중간 총교역의 약 30% 정도가 경화

결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약 20% 정도가 변경지역을 통한 민간부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50% 정도는 청산결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원유, 석탄, 코크스, 군수불자 등이 주로 청산결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해 자관을 세방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에너지 세공이 감소될 것이다.

한편, 최근 북중간 무역은 북한이 계약 내용을 어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현물을 인도받은 다음 북한에 물자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북중간 무역방식의 변화는 북중 양국간 무역거래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북중 경제관계 전망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고, 북한도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간 경제관계도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형태를 보일 것이다. 북중간 전략물자 교류는 청산결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원유와 식량 등 북한경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품목을 계속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이 동북3성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을 통해

서 볼 때, 북중간 경제교류는 북한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중간 경제관계는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증대되기 보다는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경제의 구조적 낙후성과 폐쇄성 그리고 이에 따른 북한경제의 수출능력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주요 수출상품인 원유, 식량 등은 북중간 비교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원조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성격이 크다는 점이다. 중국이 최근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적 실리에 따라 대외경제관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조제공 형식의 경제교류는 감소될 것이다. 셋째, 최근 북한이 대미·대일 관계 개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 바, 북한의 대미·대일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북한과 중국간 경제관계가 점차 정치적·안보전략적 고려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경제적 실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경제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및 식량 지원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북한은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하여 미·일 등 서방국가에 대해 개방정책을 채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統